

영어와 스칸디나비아어 연속 순환 이동과 어순 보존*

이광호
(경상대학교)

Lee, Kwangho. 2009. **Successive Cyclic Movement in English and Scandinavian and Order Preservation.** *Linguistics Research* 26(2), 15-30. Fox & Pesetsky (2005) proposed a theory of cyclic linearization to account for successive cyclic movement in terms of Spell-out domains. They suggested that word order in a phrase determined in a lower Spell-out domain cannot be changed in a higher domain. This is called "Order Preservation." Scandinavian Object Shift phenomena can be explained well in terms of their theory of Order Preservation. However, problems arise with respect to Scandinavian *wh*-movement/Quantifier Movement and English *wh*-movement/Topicalization. Without an appropriate mechanism to make Scandinavian *wh*-phases/quantifiers and English *wh*-phases/topicalized expressions stop by the left edge of VP, a word order conflict will arise between CP and VP.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 parametrization of the property of verbal head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successive cyclic movement, cyclic linearization, Order Preservation, Spell-out

1. 서론

Chomsky(1993, 1995, 2000, 2001, 2004, 2007; cf. Bošković 2005)는 의문사와 같은 요소가 이동할 때는 *vP*와 CP의 명시어(Specifier) 자리를 거쳐 연속 순환적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Fox & Pesetsky(2005)는 *vP* 대신 VP와 CP의 명시어 자리를 거쳐 연속 순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왜 VP와 CP의 명시어 자리를 거쳐 연속 순환 이동(successive cyclic movement)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순환적 선형화(Cyclic Linearization) 이론의 어순 보존(Order Preservation)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어순 보존 원리는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Object Shift)에 대한 Holmberg(1996)의 일반화(Holmberg's Generalization)를 잘 설명해 준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과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가 어떻게 해서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와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Fox & Pesetsky의 순환적 선형화 이론이

* 이 논문을 읽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 문제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V의 EPP 자질 매개 변인 설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사구조의 순환적 선형화 이론

Chomsky(1993, 1995, 2000, 2001, 2004, 2007)는 영어 의문사가 다음과 같이 연속 순환적으로 이동한다고 본다(cf. Barss 1986, McDaniel 1989, Lebeaux 1991, Fox 1999, McCloskey 2000).

(1) I wonder [*which book* he [*t'''* thinks [*t''* Mary *t'* read *t*]]]

Fox & Pesetsky(2005)는 의문사 이동이 어떻게 해서 VP와 CP를 통해 연속 순환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의문사가 이동할 때 마다 이전의 국면(phase)에 의해 관할(dominate)되는 단어들과의 어순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의 핵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Fox & Pesetsky 2005: 5): “어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문자화 영역(Spell-out domain)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해지면 도출 과정에서 절대로 삭제되지 않는다.” Fox & Pesetsky(2005: 5)는 이러한 문자화의 특성을 “어순 보존”(Order Preserv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에 의하면 (2)와 같은 문장에서 의문사는 VP의 명시어 자리와 CP의 명시어 자리를 거쳐 문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 과정을 통해 각 국면에서의 어순이 결정되고 그 정보들에 의해 문장의 어순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CP와 VP의 명시어 자리를 통과하는 연속 순환적 의문사 이동

[*To whom* will he [*t'''* say]_{CP} *t''* [that Mary [*t'* gave the book *t*]]]?

(2)에서 나타나는 이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는 내포절의 VP 내에서 일어나는데 의문사가 VP의 명시어 위치로 이동하여 *gave the book* 이라는 단어들을 앞서게 될 경우 VP 내 단어들의 어순이 새롭게 수정된다. 2 단계는 CP 에서 일어나는데 원래 *Mary* 뒤에 있던 의문사가 *Mary*를 앞서게 되도록 어순이 수정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2 단계에서는 CP의 명시어 자리로 이동한 의문사와 *Mary*의 어순만 수정되고 그 이전의 국면인 VP 내에 있던 단어들과 관련된 어순은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문사는 내포절 VP 국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gave the book*을 선행하게 되고, 그 다음 국면인 CP 국면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계속 *gave the book*을 선행하는 어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이론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영어 의문사가 비연속 순환적 이동을 할 경우와 연속 순환적 이동을 할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비연속 순환적 이동의 경우를 보겠다.

(3) Spec, VP를 뛰어넘는 의문사 이동

[*To whom* will he [*t''* say [_{CP} *t'* that Mary [_{VP} gave the book *t*]]]?

위와 같은 이동의 경우 VP와 CP에 문자화가 적용되면 VP와 CP 단계에서의 어순은 아래와 같이 된다.

(4) 문자화가 VP에 적용될 경우 (비연속 순환적 도출)

gave<the book<to whom

(5) 문자화가 CP에 적용될 경우 (비연속 순환적 도출)

to whom<that<Mary<VP

위와 같이 VP와 CP 상에서 문자화를 통해 어순이 정해진다고 할 때 VP 단계에서의 어순은 gave와 the book이 to whom 보다 앞서게 되는데 CP 단계에서의 어순은 to whom이 VP 내의 gave와 the book 보다 앞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와 (5)의 정보가 상충되는 조건을 음운부(PF)에 부과하므로 어순 보존 원리를 어겨 음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3)과 같은 비연속 순환적 도출은 허용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연속 순환적 이동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6) Spec, VP에 들렀다 가는 의문사 이동

[*To whom* will he [*t'''* say [_{CP} *t''* that Mary [_{VP} *t'* gave the book *t*]]]?

(7) 문자화가 VP에 적용될 경우 (연속 순환적 도출)

to whom<gave<the book

(8) 문자화가 CP에 적용될 경우 (연속 순환적 도출)

to whom<that< Mary<VP

(7)과 (8)에서의 어순 정보는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7)은 to whom이 gave the book을 선행해야 한다는 음운부 제약이고 (8)은 to whom이 VP 요소뿐만 아니라 that Mary라는 단어들도 선행해야 한다는 음운부 제약인데 이 둘은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연속 순환적 도출은 허용될 수 없지만 연속 순환적 도출은 적합한 도출로 허용될 수 있다.

문자화가 D에 적용된 후 a가 (9)에서처럼 D와 병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 (9) *a* merges with D
 $a [D X Y Z]$

*a*가 D에 병합된 뒤 D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D의 왼쪽 가장자리에서 *X*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10) Scenario 1 (왼쪽 가장자리에서의 좌측이동)
 $[D' \dots X a [D t_X Y Z]]$
 Ordering: $X < a$ $X < Y$
 $a < D \rightarrow a < Y$ $Y < Z$

위에서 D는 하위 문자화 영역이고 D'는 상위 문자화 영역이다. “ $X < a$ ”는 X의 마지막 요소가 *a*의 첫 번째 요소를 선행한다는 의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 $a < D$ ”는 *a*의 마지막 요소가 D의 첫 번째 요소를 선행한다는 의미로서 위의 경우에는 *a*가 Y를 선행한다는 뜻이다. 화살표는 이와 같은 어순 설정의 결과로서 음운부에서 *a*가 Y보다 앞선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에서 중요한 것은 D가 문자화될 때 X가 D의 왼쪽 가장자리에 있었으므로 D'의 문자화에 의해 추가된 어순 표시가 D에서 결정된 어순 표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자화 영역 D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의 이동은 어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왼쪽 가장자리가 아닌 곳에서 좌측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 (11) Scenario 2 (왼쪽 가장자리 아닌 곳에서의 좌측 이동)
 $[D' \dots Y a [D X t_Y Z]]$
 Ordering: $Y < a$ $X < Y$
 $a < D \rightarrow a < X$ $Y < Z$

(11)에서 Y는 원래 D의 왼쪽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D'가 문자화될 때 추가된 어순 표시는 D가 문자화될 때 결정된 어순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 $a < D$ ”라는 표시는 *a*가 X를 선행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 문자화 영역 D에서의 어순 표시는 “ $X < Y$ ” 즉 X가 Y를 선행한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상위 문자화 영역 D'에서의 어순 표시는 Y가 *a*를 선행하므로 Y는 X를 선행한다고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어순 정보들은 상충되는 정보로서 발음을 위한 지시로 해석될 때 음운부가 처리할 수 없는 모순적 어순 정보가 되어 발음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3)에서와 같이 VP의 명사어 자리를 건너뛰는 의문사 이동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9)에서 X와 Y가 둘 다 D 바깥의 *a* 왼쪽 위치로 이동하는 (12)와 같은 경우를 생

각해 보기로 하겠다.

(12) Scenario 3 (가장자리와 가장자리 아닌 곳에서의 이동)

$$[D \dots X \dots Y \ a \ [D \ t_X \ t_Y \ Z]]$$

Ordering: $X < Y$ $X < Y$
 $Y < a$ $Y < Z$
 $a < D \rightarrow a < Z$

다른 이론 하에서는 다중 명시어 구문에서 X와 Y가 둘 다 탈출구(escape hatch)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순환적 선형화 이론에서는 X와 Y가 원래 어순을 보존하는 한 그런 이동이 가능하다. X와 Y가 원래 어순을 보존한다면, D'의 문자화에 의해 추가되는 새로운 어순 표시가 D에서 결정된 어순 표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Y가 D의 왼쪽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어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X와 Y의 어순이 이동 전후에 동일하기 때문에 Scenario 3은 Scenario 2와는 다른 것이다.

다음은 (11)에서 (13)과 같이 D가 생략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D가 생략되면 D안에 있던 X (그리고 Z)는 발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X (또는 Z)와 관련된 어순 표시는 발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13) Scenario 4 (가장자리 아닌 곳에서의 좌측 이동+생략)

$$[D \dots Y \ a \ [D \ X \ t_Y \ Z]]$$

ellipsis Ordering: $Y < a$ $X < Y$
 $a < D \rightarrow a < X$ $Y < Z$

그러므로 (13)에서처럼 D가 생략되면 Y의 이동은 아무런 어순 충돌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D와 같은 영역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이동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생략에 의한 구제”(Salvation by Deletion)로 분류되는 현상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논의된 Fox & Pesetsky(2005)의 순환적 선형화 이론을 정리해 보면, (14)(=9))와 같은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14) $a \ [D \ X \ Y \ Z]$

1. X는 D의 좌측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 Y는 음운적으로 X를 넘어가지 않는 한 D의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Y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운적으로 X를 넘어가지 않고 D의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다:

- a. X가 좌측으로 더 멀리 이동하거나 (Scenario 3) 또는
- b. X가 생략의 결과로서 발음되지 않는 경우 (Scenario 4).

첫 번째 결과는 X를 D로부터의 이동을 위한 탈출구로 지정하는 이론에서도 예측 가능한 것이지만 두 번째 결과는 Fox & Pesetsky(2005)의 이론에서만 예측 가능한 것이다(cf. Uriagereka 1999, Nissenbaum 2000).

3. 순환적 선형화 이론의 적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순환적 선형화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Holmberg(1996)의 일반화와 영어 의문사 이동 및 화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하겠다.

3.1 Holmberg의 일반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어 같은 스칸디나비아어는 동사가 문두에서 두 번째 위치에 오는 V2 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상위절 동사가 C 자리로 이동할 때는, 어떤 의미(또는 형태)적 자질을 지닌 목적어가 VP 밖의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목적어 이동의 도착 지점은 VP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의 왼편이다. 중요한 사실은 동사가 C 자리로 이동하지 않을 때는 목적어 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제약은 Holmberg의 일반화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스웨덴어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5) a. Jag kysste henne inte [_{VP} *t_v* *t_o*]
 I kissed her not
 b. *...att jag henne inte [_{VP} kysste *t_o*].
 that I her not kissed
 c. *Jag har henne inte [_{VP} kysste *t_o*].
 I have her not kissed

위와 같은 사실은 순환적 선형 이론의 어순 보존 원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먼저 (15a)와 같은 V-to-C 이동이 수반되는 목적어 전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5a)에서 나타나는 목적어 전치의 경우는 VP와 CP의 어순이 (16)과 같이 결정되므로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16) 목적어 전치+V-to-C 이동

- a. **VP:** [VP V O]
 Ordering: **V<O**
- b. **CP:** [CP S V [TP t_s O adv [VP t_v t_o]]]
 Ordering: **S<V** V<O
 V<O
 O<adv
 adv<VP → ∅

VP가 문자화될 때, 동사는 목적어를 선행하는 것으로 어순이 결정된다. 동사는 CP에서도 계속 목적어를 앞서게 된다. VP는 흔적들만 관할하므로 "adv<VP"라는 표시는 발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어순 상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¹⁾

다음은 V-to-C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목적어 전치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 같은 이동은 (15b-c)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15b)에서처럼 목적어 전치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순이 (17)과 같이 결정된다.

(17)*V-to-C 이동 없는 목적어 전치 (내포절)

- a. **VP:** [VP V O]
 Ordering: **V<O**
- b. **CP:** [CP C [TP S O adv [VP V t_o]]]
 Ordering: **C<S** V<O
 S<O
 O<adv
 adv<VP → **adv<V**

(17)의 경우에는 CP의 문자화 단계에서 결정되는 어순 표시가 VP의 문자화 단계에서 결정된 "V<O"라는 어순 표시와 모순을 초래한다. "O<adv"라는 표시와 "adv<V"라는 어순 표시가 주어질 때 CP에서의 어순은 "O<V"가 되어 목적어가 동사를 선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VP에서의 "V<O"어순과 모순을 일으켜 허용될 수 없는 Scenario 2와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15c)에서처럼 조동사는 C로 이동하고 V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목적어가 전치되면 (17)에서와 동일한 어순 상의 모순이 (18)에서와 같이 발생하게 된다.

1) 만일 VP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는 가시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adv<VP"라는 표시는 부사가 그와 같은 요소들의 앞에 위치하도록 어순을 정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18)*V-to-C 이동 없는 목적어 전치 (조동사 있는 상위절)

- a. **VP:** [VP V O]
 Ordering: **V<O**
- b. **CP:** [CP S aux [TP t_s O adv t_{aux} [VP V t_o]]]
 Ordering: **S<aux** V<O
 aux<O
 O<adv
 adv<VP → **adv<V**

3.2 역 Holmberg 효과

Holmberg의 일반화와 달리 동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만 VP 내의 요소가 이동할 수 있는 역 Holmberg(1998) 효과(Inverse Holmberg Effect)를 보이는 국부적 이동(local movement)이 있다.

- (19) Ven kysste jag?
 who kissed I
 'Who did I kiss?'

(19)는 의문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문두로 이동하는 경우인데 이런 의문사 이동의 경우 의문사가 동사 뒤의 원래 위치에서 바로 CP의 명시어 자리로 이동하면 VP 영역 어순과 CP 영역 어순이 모순을 일으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a)에서 처럼 목적어가 CP의 명시어 자리로 이동하기 전에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이 상태에서 VP의 어순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VP가 문자화될 때 VP의 어순이 "O<V"로 결정된다. 그리고 나중에 동사가 C자리로 이동하고 목적어인 의문사는 CP의 명시어 자리로 이동한 후 CP 영역이 문자화되면 CP 영역의 어순도 "O<V"로 결정된다. 그러면 VP 영역에서 결정된 "O<V" 어순이 CP 영역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VP 영역과 CP 영역의 어순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20) 연속 순환적 의문사 이동+V-to-C 이동

- a. **VP:** [VP O V t_o]
 Ordering: **O<V**

- b. **CP:** [CP O V S [VP t_o t_v t_o]
 Ordering: **S<VP** → ∅ O<V
 V<S
 O<V

이런 경우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가 VP 내에 있는 상태에서 동사를 뛰어넘는 이동을 하므로 역 Holmberg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역 Holmberg 효과는 아이슬란드어를 포함하여 여러 스칸디나비아어에서 나타나는 양화사 이동(Quantifier Movement)에서도 보여진다 (Rögnvaldsson 1987, Jónsson 1996, Svenonius 2000).

양화사 이동을 하는 양화사는 VP 내 요소들을 건너 좌측으로 이동하여 VP 바깥의 목적어 전치 위치보다 조금 아래 위치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양화사 이동은 (21)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Holmberg의 일반화를 지키지 않게 된다.

(21) 아이슬란드어 양화사 이동

- a. Jón hefur ekkert [sagt Sveini ____]
 Jon has nothing said Svein-DAT
 'Jon has told Svein nothing'
 b. Äg hef mörgum bókum skilað Jóni.
 I have many books returned Jon-DAT
 'I have returned many books to Jon'

위 예에서 양화사 표현들은 VP 내의 다른 요소들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VP 밖의 마지막 도착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VP의 왼쪽 가장자리에 들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화사가 VP의 왼쪽 가장자리에 들 때 VP의 문자화가 이루어지면서 양화사가 동사와 VP 내의 다른 요소들을 선행하는 순서로 어순이 정해지고 양화사가 VP 밖으로 이동해 나가 CP의 문자화가 이루어질 때도 양화사가 동사와 VP 내의 다른 요소들을 선행하는 순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같은 어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양화사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양화사를 건너가는 V-to-C 이동은 일어날 수 없다.

(22) [VP Q V XP _____]

만일 아래 (23)의 예에서처럼 양화사 이동 후 동사가 양화사를 건너 C자리로 이동하면 VP 내에서의 어순은 (24a)에서처럼 목적어가 동사를 앞서는 "O<V"로 결정되고, CP 내에서의 어순은 (24b)에서처럼 동사가 목적어를 앞서는 "V<O"로 결정되어 모순이 생기게 된다.

(23) V-to-C 이동과 양립할 수 없는 양화사의 VP 좌측 이동

*Jón sagði ekkert Sveini ____ .
 John said nothing Svein-DAT

(24) *양화사 이동+V-to-C 이동

a. **VP:** [VP O V IO t_o]
 Ordering: **O<V**
V<IO

b. **CP:** [CP V O S [VP t_o t_v IO]]
 Ordering: **S<VP** → **S<IO** O<V
O<S V<IO
V<O

그러므로 양화사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동사 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은 이중 목적어 구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 현상이다.

3.3 영어 의문사 이동 및 화제화

앞에서 살펴 본 스칸디나비아 자료들에 적용된 어순 보존 원리가 영어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영어 의문사 이동과 화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5) a. What would you like?

b. Apples I like.

(25a)같은 영어 의문사 구문의 경우 의문사가 VP 내의 목적어 위치에서 바로 CP의 명시어 자리로 이동해 가면 VP 내의 어순은 동사가 목적어인 의문사를 선행하는 “V<O”의 어순이 되지만, CP 상의 어순은 “O<V”가 되어 모순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25a)같은 문장이 정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모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VP의 어순이 결정될 때 목적어가 (26a)에서처럼 VP의 좌측 가장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다.

(26) 영어 의문사 이동

a. **VP:** [VP O V t_o]

Ordering: O<V

b. CP: [CP O [TP S [VP t_o V t_o]]]
 Ordering: S<VP → S<V O<V
 O<S
 O<V

VP가 문자화 될 때 목적어가 VP의 좌측 가장자리에 나와 있으면 VP 내의 어순은 “O<V”가 된다. 그리고 목적어가 CP의 명사어 자리로 이동하면 CP가 문자화 될 때 CP 내의 어순도 (26b)에서처럼 “O<V”가 된다. 그러면 VP와 CP 내의 어순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 (25a)가 정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5b)의 경우도 목적어가 VP의 좌측 가장자리로 나온 후 VP가 문자화 되면 VP 내의 어순이 “O<V”가 되고 목적어가 화제화 된 후 CP가 문자화 되면 CP 상의 어순도 “O<V”가 된다. 그렇게 되면 VP와 CP 내의 어순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25b)가 정문이라는 것을 잘 설명 할 수 있게 된다.

3.4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이나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VP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Holmberg의 일반화가 적용되는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VP 바깥의 부사 앞으로 이동해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는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이나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VP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왜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이나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같은 경우 목적어가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VP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Fox & Pesetsky(2005)의 어순 보존 원리가 지켜질 수 없어 정문을 비문으로 잘못 예측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모든 목적어는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VP 밖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의 경우에도 목적어가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VP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순 보존 원리가 위배되어 정문이 비문으로 잘못 설명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줄 장치가 있어야 Fox & Pesetsky(2005)의 어순 보존 원리로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와 의문사/양화사 이동 그리고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같은 현상을 모두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제안: V의 EPP 자질 매개 변인 설정

여기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VP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VP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는데 이와 달리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과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VP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VP 좌측에 들러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을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구문의 V와 영어 V는 비해석 자질인 EPP 자질을 가질 수 있지만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 구문의 V는 EPP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V의 EPP 자질 차이는 언어와 구문의 V 자질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²⁾ 이러한 V 자질 차이를 설정하면 앞서 지적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

(27)(=(19), (28)(=(21))과 같은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구문의 경우에는 V가 비해석 자질인 EPP 자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EPP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목적어가 VP의 좌측에 들러야 한다.

(27) Ven kysste jag?
 who kissed I
 'Who did I kiss?'

(28) a. Jón hefur ekkert [sagt Sveini ____]
 Jon has nothing said Svein-DAT
 'Jon has told Svein nothing'

b. Äg hef mörgum bókum skilað Jóni.
 I have many books returned Jon-DAT
 'I have returned many books to Jon'

(29)(=(15a))와 같은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 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VP에 들러 점검해 주어야 할 EPP 자질이 V에 없으므로 VP 좌측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바로 VP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29) Jag kysste henne inte [_{VP} t_v t_o]
 I kissed her not

2) 구문의 특성으로 인해 EPP 자질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Wh-의문문인지 Yes-No 의문문인지에 따라 [+wh]자질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사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0)(=(25))과 같은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V의 EPP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VP 좌측에 들르지 않으면 안 된다.

- (30) a. What would you like?
 b. Apples I like.

이와 같이 되면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구문의 경우에는 (31)에서처럼 VP가 문자화 되는 단계에서 VP 내의 어순이 "O<V"가 되고 목적어가 VP 밖으로 이동한 후 CP가 문자화되는 단계에서 CP 내의 어순 역시 목적어가 동사를 선행하는 "O<V"가 된다. 그렇게 되면 VP와 CP 상의 목적어와 동사의 어순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 문제가 없게 된다.

(31) 아이슬란드어 양화사 이동

- a. **VP:** [VP O V IO t₀]
 Ordering: O<V
 V<IO
- b. **CP:** [CP S O [VP t₀ V IO t₀]]
 Ordering: S<O O<V
 O<VP → O<V V<IO
 O<IO

또한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구문의 경우에도 (32)(=(26))에서처럼 목적어가 VP 내에서 문자화되는 단계와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여 CP의 명사어 위치에서 문자화되는 단계에서 모두 어순이 "O<V"로 결정되어 상호 일치하게 된다.

(32) 영어 의문사 이동

- a. **VP:** [VP O V t₀]
 Ordering: O<V
- b. **CP:** [CP O [TP S [VP t₀ V t₀]]]
 Ordering: S<VP → S<V O<V
 O<S
 O<V

따라서 문제의 구문들이 어떻게 정문이 될 수 있는지를 어순 보존 원리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Fox & Pesetsky(2005)는 이동이 연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순환적 선형 이론의 어순 보존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VP라는 하위 문자화 영역에서 결정된 어순은 CP라는 상위 문자화 영역에서 바뀔 수 없으며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순 보존 원리로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 같은 현상은 잘 설명될 수 있지만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과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같은 현상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V-to-C 이동이 수반되는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의 경우에는 CP 영역에서 동사가 목적어를 앞서게 되므로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VP 바깥으로 이동하기 전에 VP 좌측에 들르지 않고 바로 나가도 괜찮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이동이나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 같은 경우에는 CP 영역에서 목적어가 동사를 앞서게 되므로 동사 뒤의 목적어가 VP 밖으로 나가기 전에 VP의 좌측에 들러 목적어가 동사를 선행하는 순서로 어순이 결정되지 않으면 CP 영역에서의 어순이 VP 영역에서의 어순과 상이하게 되어 정문을 비문으로 잘못 예측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Fox & Pesetsky의 어순 보존 원리는 실제 적용에 있어 그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순 보존 원리가 타당한 설명력을 지닌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V의 EPP 자질 매개 변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 구문의 V는 목적어를 VP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EPP 자질을 지니지 않지만 스칸디나비아어 의문사/양화사 구문의 V와 영어 V는 목적어를 VP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EPP 자질을 지닐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V의 EPP 자질 매개 변인 설정을 통해 스칸디나비아어 목적어 전치와 의문사/양화사 이동의 차이 그리고 영어 의문사 이동/화제화와의 차이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어순 보존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Barss, A. 1986. "Chains and Anaphoric Dependence: On Reconstruction and Its Impl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Bošković, Ž. 2005. "On the Locality of Move and Agree: Eliminating the Activation

- Condition, Generalized EPP, Inverse Case Filter, and the Phase-Impenetrability Condition," *UConn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3.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et al. (eds.), *Step by Step: Essays i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2007. "On Phases," in R. Freidin, C. P. Otero, and M.-L. Zubizarreta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133-166. Cambridge, Mass.: MIT Press.
- Fox, D. 1999. "Reconstruction, Binding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Chains," *Linguistic Inquiry* 30, pp.157-196.
- Fox, D. and D. Pesetsky. 2005. "Cyclic Linearization of Syntactic Structure," *Theoretical Linguistics* 31(1-2), pp.1-46.
- Holmberg, A. 1996. "Word Order and Syntactic Features in the Scandinavian Languages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ockholm.
- Holmberg, A. 1998. "Remarks on Holmberg's Generalization," *Studia Linguistica* 53, 1-39.
- Jónsson, J. G. 1996. "Clausal Architecture and Case in Icelandic, Linguistic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Lebeaux, D. 1991. "Relative Clauses, Licensing, and the Nature of the Derivation," in S. D. Rothstein (ed.), *Perspectives on Phrase Structure: Heads and Licensing*. San Diego: Academic Press.
- McCloskey, J. 2000. "Quantifier Float and *Wh*-Movement in an Irish English," *Linguistic Inquiry* 31, pp.57-84.
- McDaniel, D. 1989. "Partial and Multiple *Wh*-Movement,"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7, pp.565-604.
- Nissenbaum, J. 2000. "Investigations of Covert Phrase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 Rögnvaldsson, E. 1987. "On Word Order in Icelandic," in *Proceedings of the Seventh Biennial Conference of Teachers of Scandinavian Studies in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33-49.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Svenonius, P. 2000. "Quantifier Movement in Icelandic," in P. Svenonius (ed.), *The Derivation of VO and OV*, 255-292. Amsterdam: John Benjamins.
- Uriagereka, J. 1999. "Multiple Spell-out," in S. Epstein and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251-282. Cambridge, Mass.: MIT Press.

이광호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60-701

E-mail: klee@gnu.ac.kr

접수일자: 2009. 07. 01

수정일자: 2009. 08. 15

게재일자: 2009. 08. 23